

'23. 11.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2023년 김승일 의원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 **출장기간** : 2023. 11. 2.(목) ~ 11. 6.(월) / 4박 5일
- ☐ **출 장 국** : 대만(타이페이)
- ☐ **출장인원** : 2명(의원 1, 활동보조요원 1)
- ☐ **출장목적** : 우수 선진시설 및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반영



김제시의회

■ 목 차 ■

I . 출장 개요	3
II . 출장보고서	6
1. <1일차> 출 국	6
2. <1일차> 디화제 전통시장	7
3. <1일차> 타이페이 국제여성 이주민 센터	8
4. <2일차> 타이페이 시의회	9
5. <2일차> 타이페이 시청	10
6. <2일차> 타이페이 101	11
7. <2일차> 신이광장 청년거리	12
8. <3일차> 타이페이 지하철 및 장애인 인프라	12
9. <3일차> 타이페이 시립 대학교	13
10. <3일차> 타이페이 3대 야시장 “닝샤 야시장”	15
11. <3일차> 대만 총통 선거 문화	16
12. <3일차> 젊음의 거리 “시먼딩”	16
13. <4일차> 장애인 보조기술 센터	18
III . 총 평	19

□ 출장목적

- 우수 선진시설 및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반영
- 국외 문화 및 정책 시찰을 통한 창의적·발전적 정책개발 도모

□ 개 요

- 출 장 명 : 2023년 김승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 출장일정 : 2023. 11. 02.(목) ~ 11. 06.(월) / 4박 5일
- 출 장 국 : 대만
- 출장도시 : 타이페이
- 출장인원 : 2명 (의원 11, 활동보조요원 1)
- 출장과제 : 우수사례 비교분석(조사) 및 김제시(의회) 접목방안 연구
 - 청년, 여성, 장애인, BF(Barrier-Free), 교통, 지방자치 발전 분야 등
- 주요 출장지
 - 기관방문 : 타이페이 시의회 및 시청, 타이페이 국제여성 이주민 센터
타이페이 시립대학교, 장애인 보조기술 센터
 - 선 진 지 : 디화제 정통시장, 청년거리, 야시장, 타이페이 101 등

□ 출장효과

- 국외 주요도시의 문화를 습득하고 각종 선진사례를 접함으로써 의정 시야를 넓히고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

□ 주요 출장일정

일자	지역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11/2 (1일차)	인천	11:40	◦ 인천 → 타이페이	
	타이페이	13:30	◦ 타이페이 현지 도착 및 호텔 체크인	
		16:30	◦ 타이페이 국제여성 이주민 센터	
		18:00	◦ 디화제 전통시장	
11/3 (2일차)	타이페이	10:30	◦ 타이페이 시의회 및 시청	
		15:30	◦ 타이페이 101 및 신이광장 청년거리	
11/4 (3일차)	타이페이	전 일	◦ 타이페이 시립대학교, 닝샤 야시장, 시먼딩	
11/5 (4일차)	타이페이	10:00	◦ 장애인 보조기술센터	
11/6 (5일차)	타이페이	13:15	◦ 타이페이 → 인천	
	김제	23:00	◦ 시의회 도착 후 해산	

□ 출장자 인적사항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김제시의회	의 원	김 승 일 (KIM SEUNGIL)	의원
2	김제시의회	기 간 제	홍 은 찬 (HONG EUNCHAN)	활동보조요원

1

〈1일차〉 출 국

- 본 의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몸도 불편할 뿐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어 제주도만 가더라도 큰 모험이다. 당연히 의원 국외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과학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핸드폰으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소중한 혈세로 연수는 허울뿐이고 관광이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편견으로 편잔을 늘어놓곤 했다. 대만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갈 때부터 투덜거렸다. 4박 5일이 바람처럼 지나가길 바랐다.
- 그래도 오직 하나 “한국과 비슷한 대만의 잘 갖춰진 BF(Barrier-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를 몸소 체험하고, 김제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하거나 수정 개선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압도당했다. 해외 출국이 처음이라 인천공항의 규모도 처음 본 것이다. 수많은 관광객과 일사천리로 업무를 처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색들의 항공사 직원들도 신기했다. 만 40세 청년이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휠체어를 탄 필자를 보고 직원이 따로 배정되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대만 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안내를 받았다.
- 이번 출장의 주요 키워드는 청년/여성/장애인/선거 및 정치였고, 이분들과 관련된 대만 기관들을 찾아다녔다. 물론 휠체어를 타고,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2

〈1일차〉 디화제 전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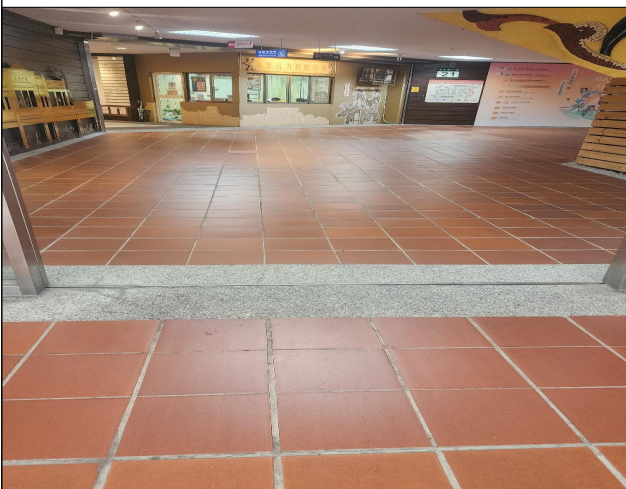
- 대만 타이페이시 다통구에 위치한 디화제 전통시장은 100년이 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BF(Barrier-Free)가 잘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의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U-bike “ 자전거 대여소가 인상적이었다. 디화제의 거리는 대체로 깔끔했으며, 현지인과 다수의 여행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디화제만의 시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디화제 거리



디화제 공유 U-bike 자전거



디화제 BF(barrier-free)



디화제 거리 향로

3

〈1일차〉 타이페이 국제여성 이주민 센터

- 디화제에 위치한 타이페이 국제여성 이주민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각 나라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국제여성에게 대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지원(통역 및 콜센터 업무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이주여성에게 요양보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한국은 아님)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성분들의 개별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 대만은 국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낮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며, 이에 반해 대만에서 한국은 차별인식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안타까웠다. 해당 센터의 도움으로 대만으로 온 한국 이주민 여성과 연결되어 인터뷰 진행하였다. 해당 여성은 타이베이 대학교에서 대학원 생활을 마친 후 배우자를 만나 대만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주로 통역 관련 업무와 정보처리 자동화 개발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금융 및 IT,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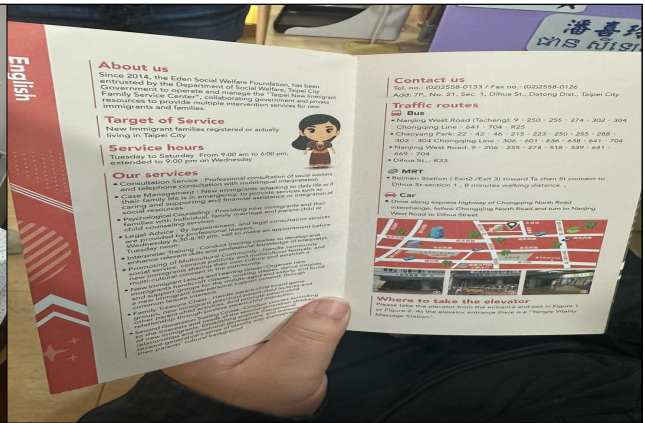
타이페이 국제여성이주민센터



관계자 미팅



타이페이 국제여성이주민센터(1)



타이페이 국제여성이주민센터(2)

4 <2일차> 타이페이 시의회

- 타이페이 신이구에 위치한 타이페이 시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선거 구조나 시스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시의원을 4년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시의회 건물 내부 곳곳에 BF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내 직원의 환대 속에서 의회 구성과 기능을 영상(한국어 더빙)으로 시청하였다.



타이페이 시의회 회의장



관계자 미팅



타이페이 시의회 회의장 + 환영문(스크린)



시의회 영상시청(한국어)

5

〈2일차〉 타이페이 시청

- 타이페이 시의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타이페이 시청을 방문하였다. 시청 외부 광장과 내부에 여가를 즐기러 온 시민과 관광객이 많았다. 시청 1층 민원실은 직원과 민원인이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타이페이 시청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방형 광장을 김제시청에 도입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페이 시청 내부(1)



시의회 관계자 시청 설명 중



개방형 민원실



타이페이 시청 내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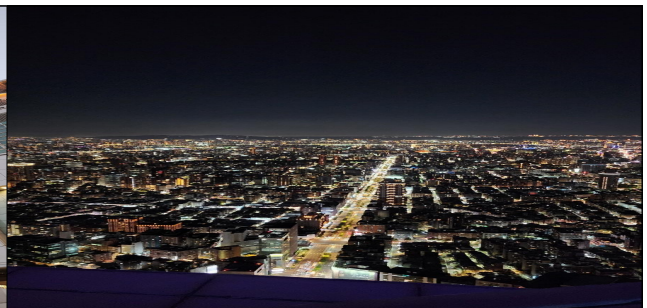
6

〈2일차〉 타이페이 101

- 대만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우리나라의 롯데타워와 매우 유사하다. 201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 신기록에 등록되었으나 이후 부르즈할리파(두바이), 롯데타워(한국)에 밀렸다.
- 한국의 백화점과 같은 쇼핑센터가 있으며, 푸드코트는 무척 저렴하다. 물건과 상품 그리고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물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음식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물가 형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 타이페이101 “ 건물 옥상에는 타이페이 야경을 보러온 한국인들이 즐비했다. 마치 이곳은 한국인지 대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인이 많았다.



타이페이101



90층에서 바라본 타이페이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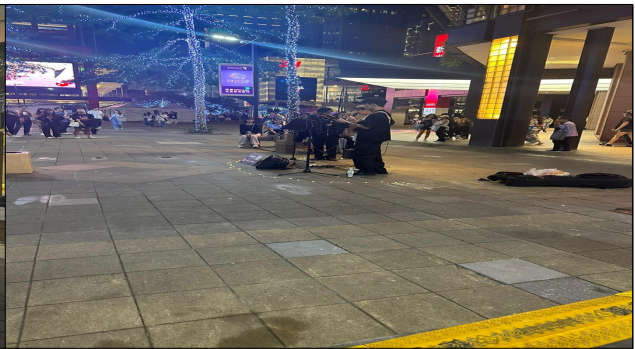
7

〈2일차〉 신이광장 청년거리

- 마치 서울의 변화가를 보는 듯한 풍경이었으며, 어느 변화가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길 측면 또는 중앙에서 청년들이 버스킹을 하며 분위기를 젊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각종 쇼핑몰과 화려한 조명으로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청년들이 모이는 것 같았다. 김제시도 청년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이광장 거리



거리 버스킹 풍경

8

〈3일차〉 타이페이 지하철 및 장애인 인프라

- ” 우리 모두는 언젠간 나이를 먹을거고,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를 느끼는 장소. 모든 게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못하였다. 심지어 공중전화 높이도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지하철의 첫량과 끝량은 휠체어 칸이 배정되어 있으며,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가 좁아 휠체어의 이동이 편리하였다. 역사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목에 외부에 비가 올 시 사용하는 ” 공유 우산 시스템 “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김제시에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동차 내 휠체어 전용 칸



첫량과 끝량 휠체어 전용 칸 배치



지하철 역내 공유우산 시스템



휠체어 탑승 용이함

9

<3일차> 타이페이 시립 대학교

- 지하철을 타고 청년거리 ” 시먼땡 “으로 향하는 도중 타이페이 시립 대학교가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였다. 해당 지역 주변 대만총통관저, 경찰본부, 법무부, 대학이 근처에 밀집되어 있었다. 해당 학교는 건물이 낡고, 그다지 넓지 않으나 도서관은 최근에 지은 것처럼 보여지며, 도서관 이용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 또한 교내 운동장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며, ‘우리시 폴리텍대학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 길을 헤매던 중 해당 대학교의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인 ”민린“을 만나 교내 및 대학로 주변 안내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인 "민린"과의 만남



타이페이 시립 대학교의 도서관



타이페이 시립 대학교 정문



교내 시민 이용이 가능한 운동장

10

〈3일차〉 타이페이 3대 야시장 “닝샤 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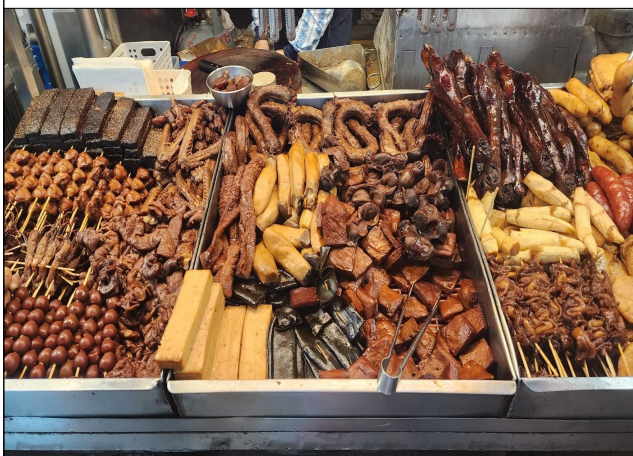
- 타이페이 3대 야시장으로 불리우는 “닝샤 야시장”은 다통구에 위치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매장과 노점이 함께 어우러진 야시장이다. 해당 야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즐비했으나, 고약한 냄새, 위생관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먹고 즐기기도 눈으로 보고 분위기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야시장의 감성과 분위기는 배울 점이 많았으나, 악취, 낮은 위생에 따른 문제점은 야시장으로써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닝샤 야시장(1)



닝샤 야시장(2)



닝샤 야시장 노점음식(1)



닝샤 야시장 노점음식(2)

11

〈3일차〉 대만 총통 선거 문화

- 2024년 1월에 대만정부의 16대 총통 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다통구 일대에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의 지지유세 현장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후보의 팬덤이나 정당 관계자의 참석률보다 일반시민들이 후보의 연설을 가볍게 청취하며, 분위기를 즐기며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해당 위세 지역에서 비치된 선거사무소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오픈형 공간으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인상 깊었다.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총통후보 지지유세 현장



후보자 전단지(한글 번역본)

12

〈3일차〉 젊음의 거리 “시먼딩”

- 한국의 “명동” 이라 불리는 대만의 시먼딩은 젊음의 열기와 끊임 없이 펼쳐진 변화가로 인상 깊었다. 어느 매장을 가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렸으며, 디저트 카페와 과일음료점 역시 대기 인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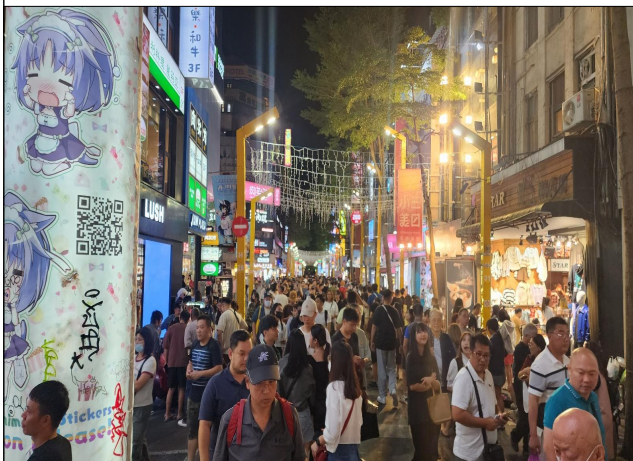
- 젊음의 거리인 만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코스프레, 버스킹, 예술공연)가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거리에 노숙인과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 잘 갖춰진 도시 인프라는 청년이 머물고 소비하며, 해당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먼딩 거리 버스킹



시먼딩 거리공연



시먼딩 거리(1)



시먼딩 거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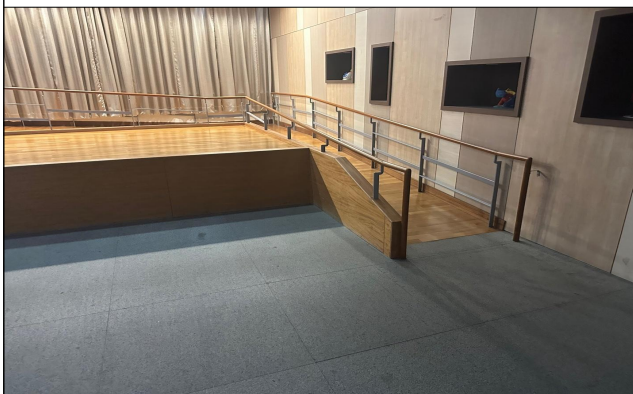
- 에덴 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타이페이시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술센터는 중정구, 완화구, 다안구, 송산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에 대해 당사자에 알맞은 보조기구를 단기 또는 장기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대여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6층 다목적실에서는 장애인 관련행사 이외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개최하여 진행 중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는 BF 또한 완만하게 설치되어 혼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장애인 보조기술 센터



센터 이용자의 "입으로그린 그림" 관람



강당 BF



체험실 높이조절 테이블

- 4박5일의 일정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많이 보고 배우며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남겼다. 해외 출장(연수)로부터 얻은 정보와 배움으로 김제시와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면, 본 의원은 연수를 위해 소요한 시민분들의 소중한 혈세가 아깝지 않다고 본다. 본 의원은 이번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김제시에 알맞은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